

**土種 홍화씨**  
영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홍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전의 재배를 통한  
관조곡 품종  
● 열매는 연구된 품종 우수 품종 생산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한국불교에 반한 외국인 전법수행자들

# 생김새 다르지만 불교사랑 한마음

“불교목적=The Purposes of Buddhism  
상구보리=First Attain Enlightenment  
하화중생=Then instruct All Creatures  
14일 오후 3시, 미국인 현각스님(화계사)의 ‘영어선불교’ 첫 강의의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법화정사(주지 도립), 대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문을 듣고 온 1백여명의 불자들이 눈부른 외국인 스님의 강의에 푹 빠졌다.

“불교(교)는 종교(교)가 아니라 삶의 지혜요, 길(길)입니다. 진짜 자유, 바로 우리를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배우는 목적(적) 분명히 알아 합니다.” 어눌한 한국말씨가 오히려 불자들의 달린 마음을 열고, 눈을 맞추며 강의하는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시간속에 불자들은 그대로 빠져 들어갔다.

외국스님들이 전법을 위해 한국불자들에게 나섰다. 한국불교를 배우겠다고 멀리 이역만리에서 찾아와 머리를 깎고, 뒷발승복을 입고 수행정진하던 외국인 스님들이 포교의 일선에 적극 나선 것이다. 아직 그 수와 활동범위는 작지만 영어법회를 통한 신 영어교육과 외국의 종교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님의 강의에 참석할 김유경학생(동국대 불교학과)은 “개념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우리생활속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쉬운 단어로 설명해줘서 이해하기도 편하고 재미있었다”고 말한다.

현각스님외에도 활동중인 스님은 화계사 국제선원의 명행스님과 청안스님, 보성 대원사의 초펠스님, 연동국제사원의 무진스님 등이다. 얼굴모양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불교의 전통을 사랑하고, 그 전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박안의 전법수행자, 그들이 우리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현각스님**  
현각스님(35세)은 지난해 MBC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만행’으로 더 유명

하다. 미국 하버드에서 비교종교학 석사까지 받은 스님은 14일부터 매주 일요일 법화정사에서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을 교재로 영어선불교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92년부터 송산스님의 법문들을 재정리편집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해왔다. 하버드에서 공부할 당시 영어로 된 한국 불교 서적이 거의 전무하던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에 온 이후 줄곧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일은 영문으로 된 불서를 많이 발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스님은 현재 ‘경허선사 어록’을 영문번역중이다.

화계사와 지리산 상선암을 오가며, 수행과 포교를 함께하고 있는 스님은 이번 영어선불교강의의 전에도 95년~96년 동국대 여흥불교강좌를 통해 불교영어, 대학영어를 지도하기도 했다. 그때 스님의 강의를 들었던 독문과 이재관학생이 졸업할 하자 마차, 화계사에서 해동스님으로 출가를 했다.

“당시 강의를 들던 보통 학생이던 해동스님이 나를 찾아와서 불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어요. 동생처럼 지내며 내가 처음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때를 들려주며 많은 대화를 나눴죠. 그랬더니 자신도 출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사제지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프로비던스선원에서 수행중입니다.”

참선이 너무 좋다는 스님은 “결재기간 동안은 항상 화계사나 지리산 등지에서 참선수행에 매진하고, 해제기간 동안에는 한국불자들과 만나며 앞으로 영어불교강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명행스님과 청안스님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영어법회를 여는 명행스님(30세), 5년전 미국에서 온 스님은 2년 넘게 일요일영어법회를 지도하고 있다. 오전 8시~8시 50분까지는 영어회화와 불교단어



◇현각스님



◇명행스님



◇청안스님



◇초펠스님



◇무진스님

## 현각·명행·청안스님-경전 영역과 영어법회 초펠스님-밀교전법 무진스님-포교사 교육

를 공부하고, 9시~9시 50분에는 송산스님의 법문을 영어로 공부한다. 영어법회에는 고등학생, 주부, 회사원, 할머니 등 2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외국인불자들도 이 영어법회에 참가한다. 영어로 한국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 일요일 오후 1시~4시 30분에는 영어로 참선의 효과와 방법을 설명하고, 정진하는 참선법회도 진행되고 있다.

“송산스님의 맑은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이유를 찾게 되었다”는 스님은 “내가 수행하는 목적이 중생을 위해서인 만큼 영어법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헝가리에서 6년전에 한국에 온 청안스

님(33세)은 3년전 청호불교문화원에서 영어강좌를 진행했었다. 영어교사 출신인 스님은 지금은 명행스님을 곁에서 도와주고 있다. 스님은 “수행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직업”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수행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영어강좌 활동을 쉬고 있다고. 하지만 조만간 영어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불자들과 다시 만날 계획이다.

### ■ 초펠스님

14세대 출가해 19년동안 향교부터 밀교에 이르기 까지 두루 섭렵한 초펠스님(34세)은 무엇보다 세계불교에 대해 관

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불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스님은 지난 96년 한국에 들어와 보성 대원사에 머물면서 한국어와 한국 불교 문화에 대해 공부했다. 어학실력이 뛰어난 스님은 1년도 채 안돼 컴퓨터를 배우고 천수경 등 웅장한 의식을 집전할 정도로 우리말에 익숙해져 이제는 강의와 설법까지 하는 등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불자들을 위해 티벳경전을 번역해 ‘개념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여시아문 권)를 발간했다. 요즘은 대원사 주회로 귀주 전일발당에서 열리는 티벳·몽골 밀교예술전 전시장에 상주하면서 안내자로 나서 불자들에게 밀교를 통한 전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 전시장 찾은 불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실천불교’ 강의도 하고 틈틈이 상담도 하고 있다.

스님은 “홍익한 불교문화의 전통을 간직한 한국불교가 티벳불교와의 영적인 교류를 통해 뛰어난 대승불교의 정신이 다시 꽃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 무진스님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알리는데 주력하기 위해 연동국제사원에서 일장 원명스님과 함께 12년여동안 포교 활동을 했던 영국인 무진스님, 외국 포교에 관심있는 불자라면 한번쯤 지문을 구하고 상담을 해볼만 정도로 알려진 웅장한 백인의 비구니스님이다.

한국에서 스님의 주요 활동 영역은 주한 외국인 불자들과 국제포교사들의 교육과 포교, 이밖에도 스님은 정기법회와 영어강좌 등의 운영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주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정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전념했다.

특히 스님은 지난 95년부터 국제포교사교육을 전담할 정도로 한국불교에 대한 애착이 깊다. 96년 부처님오신날에는 한국불교의 특징과 역사를 영어로 소개한 칼럼을 펴내는 한편 연동국제사원에 참석, 외국 관광객들에게 행사의 의미, 유래, 풍습 등을 소개할 정도로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 무진스님의 이같은 전법 원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님은 지난해 12월부터 뉴질랜드와 스위스에서 또다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다시 한국에 올 계획이다.

글=이은자·김준근 기자 (eje@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nia.com)

## 현대불교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개원사 석조여래입상.



◇개원사 약사여래불.

**■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경기도 남한산성내에 위치한 개원사는 임진왜란 이후 3백년간 승병장이 주석한 역대호국승장의 본찰이었다. 구한말 호국승장제도가 일제에 의해 폐지되면서 개원사(주지 선효)는 사세가 약화됐지만 최근

복원불사가 한창이다. 대각전에 모셔진 석조여래입상은 약간 파손된 소발의 육계와 삼도가 분명하며 근엄하고 원만한 상모를 가지고 있다. 눈 코 입은 정제된 미가 보이고 이마에는 백호가 큼직한 것이 특징이다. 법의는 통견으로 가슴에서 원호를 그리면서 밑으로 흘러 양

## 개원사

- 석조여래불  
고려 후기 범의양식
- 약사여래불  
삼도없고 범의통견

쪽끝에 걸친 의문과 잘 어울리고 있다. 왼쪽이 어깨 약간 마모됐으나 땅에 오랫동안 놓여있어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오른쪽은 어깨에 들이 외장하고 왼쪽손은 밑에서 외장하여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상호의 표정이나 귀가 어깨까지 내려온 점, 법외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후기에 조성됐다. 또 법당뒤 아산에 모셔진 석불은 풍매와 좌상을 동일식으로 조성했다. 오른쪽에 약함을 받들었던 흔적이 있는 약사여래불이다.

광배는 두신광으로 표현하여 현재 일영 두광의 흔적이 분명하다. 소발의 머리위에 낮은 육계로 표현되고 이마의 백호는 큼직하게 양각으로 표현했다. 얼굴과 눈, 코, 입등이 정제돼 있으며 원만한 상모에서 자비스러움이 느껴진다.

## 귀와 목이 짧고 삼도가 보이지 않으며 법의는 통견을 했다. 양쪽끝에 걸친 의문은 무릎에 이르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어깨에 들이 외장했고 왼쪽손은 무릎에 자연스럽게 놓아 설법인을 하고 있다. 연화좌의 불좌를 구비한 것은 전형적인 고려불상양식이며 전체적인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전기에 조성된 석불이다.

정리=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불교조각원**  
부처님오신 날 선물 받음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 “돌부처는 그 시대 신심 반영”



**“돌부처” 주제 간담회**  
본지가 지난해부터 발굴하고 있는 돌부처 찾기 운동에 답사와 고증을 해 주고 있는 정영호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석불문화연구원 이근후(이화여대 의대교수)회장, 서현 석불회 부회장과 선효스님(개원사 주지)이 ‘돌부처’를 주제로 7일 개원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정영호관장은 “민속적이고 향토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 급속히 훼손되고 마멸되는 돌부처를 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며 “돌부처에는 시기에 맞는 불상이 있다고 밝혔다. 이근후회장은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돌부처는 요즘처럼 돈가지고 조성한 것이 아니다”며 “예술성이 없는 것도 민속자료로라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현 석불회 부회장은 “미량리, 미량리, 용화리 등에 가면 돌부처가 있거나 현재도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며 무속으로 치부돼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선효스님은 “돌부처에는 무한한 불자들의 신심이 배어있는 만큼 후대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개원사에서는 불사중에 발굴된 석불을 모두 원형보존을 위해 전각에 모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